

무더위 식혀줄 전주 야간문화축제 '풍성'

전주가맥축제 · 전주얼티밋뮤직페스티벌(JUMF) · 한여름 가맥마당 · 조선팝 상설공연 등 불거리 · 즐길거리 가득

전주시민과 전주를 찾는 관광객의 무더위를 식혀줄 다양한 야간문화축제가 펼쳐진다.

시는 이달 말부터 전주 곳곳에서 '전주가맥축제'와 '전주얼티밋뮤직페스티벌(JUMF)', '한여름 가맥마당', '조선팝 상설공연' 등 한여름밤을 시원하게 만들어줄 음악과 음식이 어우러진 다양한 야간축제가 펼쳐질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가장 먼저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전주종합경기장에서 일원에서 개최되는 '2024 전주가맥축제'가 전주의 여름밤을 시원하게 적셔줄 예정이다.

전주가맥축제는 전주의 독특한 문화인 '가맥'을 주제로 전북특별자치도

와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전주가맥업체, (주)하이트진로가 함께 만들어진 전주 대표 여름 축제로, 시는 올해 가맥축제의 10주년을 맞아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를 지원할 예정이다.

전주종합경기장에서는 가맥축제에 이어 오는 8월 9일부터 11일까지 지난 2016년부터 시작된 전주 대표 음악 축제인 '전주얼티밋뮤직페스티벌(JUMF)'이 펼쳐진다.

'전주얼티밋뮤직페스티벌'은 가족·친구와 함께 다양한 연령층이 △7090 △타 △발라드·대중가요를 테마로 음악과 맥주를 즐기며 여름철 무더위를 날릴 수 있는 축제로, 올해도 풍성

한 라인업으로 관객들을 맞이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8월 10일부터 17일까지 8일간 한국전통문화전당 야외마당에서는 야간관광 특화도시인 전주시의 한여름 밤을 아름답게 물들일 '한여름 가맥마당'이 첫선을 보인다.

이번 행사는 지역대학이 개발한 특화메뉴를 기반으로 컨설팅에 참여한 지역 내 가맥업체와 대학 외식산업조리학과 학생들이 참여하고, 전주가맥을 특화된 안주와 함께 소개하는 새로운 형태의 가맥축제로 꾸며진다.

끝으로 관광거점도시 전주의 글로벌 공연콘텐츠로 자리매김한 '2024 전주 조선팝상설공연'이 오는 8월 30일부터

5주간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7시, 세병호공원·용호공원 등 주요 관광지에서 야외거리공연 형태로 운영된다.

노은영 전주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전주시는 그동안 관광객과 전주시민을 위한 음식, 음악, 역사, 영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축제를 꾸준히 개최하고 풍성한 불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해 왔다"면서 "야간축제를 통해 체류형 관광지로 관광기반을 확대하고, 전주의 글로벌 관광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강화함으로써 머무름이 있는 도시 찾는 전주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의회가 제12대 하반기 의회 개원에 맞춰 새 슬로건을 확정하고, 유관기관과의 소통 행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전주교육지원청 방문 사진)

'현장 속으로! 시민과 함께!'

슬로건 바꾼 전주시의회, 유관기관 소통 행보 박차

전주시의회가 제12대 하반기 의회 개원에 맞춰 새 슬로건을 확정하고, 유관기관과의 소통 행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11일 시의회는 시민의 목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듣고 소통을 강화한다는 의미를 담아 하반기 의회 새 슬로건을 '현장 속으로! 시민과 함께!'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이같은 슬로건 확정과 함께 첫 소통 행보로 각 유관기관을 방문해 전주시와 시민을 위해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남관우 의장과 최주만 부의장, 김원주 운영위원장, 최용철 행정위원장, 김윤철 복지환경위원장, 전운미 문화경제위원장, 박병배 도시건설위원장, 송영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전북특별자치도청, 전

북특별자치도의회, 덕진경찰서, 완경철서, 전주교육지원청, 덕진소방서, 완산소방서를 방문해 의정활동 방향을 설명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의회는 각 기관 방문에서 △현장에서 시민과 소통을 통한 현장 의정활동 강화 △투명하고 책임 있는 의회 운영 △지역발전 위한 구체적인 실질적인 성과 실행 노력 등 하반기 의회 주요 활동 방향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소통을 강조했다.

남관우 의장은 "지역 기관들과 소통과 협력은 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은 물론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지역발전을 위해 발로 뛰는 의회상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 다양한 체육시설 조성공사 본격화

육상경기장 · 야구장 · 실내체육관 건립사업 등 박차

전주시는 올 하반기 전주월드컵경기장 주변 복합스포츠타운 조성 등 공공체육시설 조성사업과 생활체육시설 정비에 합을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특히 전주월드컵경기장 일대 복합스포츠타운에서는 기존 전주종합경기장을 대체하게 될 육상경기장과 야구장, 최근 착공식을 가진 실내체육관 건립사업까지 다양한 체육시설 조성공사가 본격화된다.

이 가운데 주 시공사가 사업을 포기하면서 지지부진했던 육상경기장과 야구장 건립공사는 최근 지분 정리가 마무리됨에 따라 신세계건설을 도급사로 책임 있는 시공을 추진해서 오는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또한 시는 전주 남부권 생활체육 거점인 완산체육공원 축구장 개조와 고덕축구장을 포함한 4곳의 인조잔디를

오는 8월까지 전면 교체함으로써 그동안 부상 위험과 불편을 겪어왔던 시민들에게 더욱 쾌적한 운동환경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시는 올 연말까지 전주월드컵경기장의 야간조명을 LED로 교체해 전북현대모터스FC 프로축구 홈경기 관람 시 다양한 퍼포먼스와 불거리가 가능토록 만들기로 했다.

여기에 시는 노년기 생활체육종목으로 각광 받는 파크골프장 조성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김옥기 기자

구체적으로 내년에는 혁신도시와 유아동에도 9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이 들어서고, 이용률이 높은 마전골프장은 오는 8월까지 열림 쉼터가 조성돼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게 된다. 시는 또 조만간 마전골프장을 9홀 증설하기 위한 설계에도 돌입할 예정이다.

노은영 전주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의 건강권 보장과 활기찬 일상 충진을 위한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지속 추진하겠다"면서 "모든 사업이 정상 추진되면 전주가 명실상부 전국에서 으뜸가는 생활체육 활성화 도시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설공단 노조, 연탄은행 행복쉼터서 사랑의 배식 봉사

전주시설공단 노조(위원장 박종철)는 11일 전주 완산구 서서화동 전주연탄은행 행복쉼터에서 '사랑의 배식 봉사'를 진행했다.

이성경 노조 사무국장을 비롯한 조합원 10여 명은 이날 정성껏 준비한 점심 식사를 어르신 100여 명에게 대접했다.

이들은 오전 일찍부터 모여 식재료를 손질하고 음식을 조리한 후 배식에 나섰다. 또 기술직 직원들이 쉼터 전기 시설을 점검하고 보수했다. 노조는 배식 봉사를 마치고 연탄은행 측에 소정의 후원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노조는 매 분기 사업에 참여해 배식 봉사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4월에도 한 차례 배식 봉사를 한 바 있다.

/김옥기 기자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화학사고 안전대책 마련하라"

전북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 새만금개발청 안전관리 주체 나설 것 촉구

전북환경운동연합 등은 11일 새만금 개발청 정문 앞에서 화학 사고로부터 도민의 안전과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새만금개발청이 화학물질 안전관리의 주체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화학시 리튬전지공장 화재폭발사고(31명 사상자)로 23명의 노동자가 숨지고 8명이 부상한 중대 산업재해 참사가 일어났다. 전북도민의 격정과 우려는 새만금 산업이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새만금 이차전지특화단지는 원료채굴 및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도 입주할 계획이어서 철저한 안전관리 대책이 필요하다.

그런데 새만금개발청은 기업유치 성과에만 매달려 있을 뿐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소극적이다. 반면, 무엇이 급한지 고열도 폐수와 중금속이 포함된 폐수의 적정 처리 기준과 방법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차전지 폐수 외에 방류를 서두르고 있다.

이들 단체는 사고 위험성이 높고 유해성이 큰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이차전지 기업에 대한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환경부와 군산시, 전북자치도의 노력만으로는 안 되며 새만금개발청이 화학물질 사고 및 안전관리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새만금개발청은 전북특자도, 군산시, 시민사회와 함께 새만금 화학 안전 협의체를 구성하고 시민사회단체도 안전관리를 위해 운영할 것을 제

/김옥기 기자



안했다.

다른 한편, 새만금개발청은 환경안전 부서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이 없어서 못 한다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시급히 담당 부서를 설립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끝으로 전북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는 "기업유치, 시공단계, 가동 이후에 발생할 화학사고 대책을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뿐만 아니라 고열도 폐수 처리 문제, 공장가동에 따른 환경영향 등을 관리할 역할도 있다"며 "새만금개발청이 사고를 대비하지 않은 무책임한 기관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역설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 장애인활동지원 부정수급 예방 교육 실시

전주시는 11일 현대해상 회의실에서 장애인활동지원 부정수급 근절과 모니터링 강화를 위한 '장애인활동지원 부정수급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18개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의 시설장과 집담 인력 등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서비스 부처 개요 △부정수급 관련 법령 및 언론보도 △부정수급 사례교육 및 중점 관리 방안 등을 주 내용으로 진행했다.

특히 이날 교육에는 전자바우처 클린센터 운영 중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부정수급 담당자가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실제 부정수급 사례 등을 소개하기도 했다.

시는 앞으로도 장애인활동지원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모



니터링을 실시하는 동시에, 부정수급 적발 시에는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김재화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최근 장애인활동지원 부정수급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예방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면서 전주시는 앞으로도 제공기관의 전문성과 윤리성을 높이고, 부정수급 예방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백제역사유적지구
유네스코 세계유산 도시

왕궁리 오층석탑 국보 제10호

역사문화도시 익산

왕궁리 5층석탑 사리장엄 국보 제10호

1966년 7월 26일 국보 지정

미륵사지 사리장엄 국보 제10호

2022년 12월 27일 국보 지정

미륵사지 석탑 국보 제10호

1962년 12월 20일 국보 지정

왕궁리 오층석탑 국보 제10호

1997년 1월 01일 국보 지정